

# \*\*\* 피라네지 공간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Allegorian Characteristics of Piranesi's Etching Works

임기택\* / Lim, Ki-Taek  
임광성\*\* / Lim, Kwang-Sung

### Abstract

After the 60's, The discourse of the Art of Reception, semiotics, and epistemology have been made steady progress. Especially, the Art of Reception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reader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text, had mad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Border Dismantling in the Architecture. Its concept can be defined as the free interpretation of each individuals on the art works, that abhors the one-directional systems between reader and writer.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Borderness dismantling' as a molting the center of the world of God, center of Ideology, center of ration in the pluralized and center-cracked world. and also means vague border, no limitation, and overcoming, which make people participate together to overcome the estrangement. The process of study inquire into the phenomenon of fragmentation, indeterminacy, continuity, hybridization, mutual penetration, Rhizome and complex allegorization(the process of humanization) Looking back of architectural history, in the origin of those phenomenon, there is the etching works of Piranesi.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had been affected by his works, and re-interpret and make come true of his visions. This study analyze the meanings of his working process and consequences on contemporary architecture.

키워드 : 피라네지, 카르체리(감옥), 경계해체, 알레고리  
Keywords : Piranesi, Carceri, Border Dismantling, Allegory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인간은 물화된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해석을 부여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행동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게 된다. 역사와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건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1960년대 이후로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기호학적 논의와 수용미학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문학부문에서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수용자(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용미학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계해체' 현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여기서 경계해체의 개념은 신적인 중심이나 이데올로기적 중심 또는 이성의 중심성을 탈피하여 중심이 균열되고 다

원화되며, 경계가 모호하고 한정하기 힘든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작가의 의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하여 강제적으로 수용되기 보다는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소외현상을 극복하는 현상 역시 경계해체 현상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현상과 각종 예술의 경향은 일방향적인 작품의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객들이 참여하여 소통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건축어휘 중에 파편화, 불확정성, 연속성, 혼성, 상호침투, 복잡한 알레고리화의 과정 등이 특히 인식론적인 면에 있어서 경계해체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건축의 이러한 경향의 원류에는 피라네지 동판화의 비전에서 보이는 내부공간의 이미지가 있으며, 동판화에서의 도시와 내부공간의 비전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경계해체 공간어휘와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피라네지 동판화의 비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부공간의 수용미학적 경계해체 특성을 고찰하여, 그의 공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찰자를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소외극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알레

\* 정회원, 부천대학 건축과 실기전임강사

\*\* 정회원, 부천대학 건축과 정교수

\*\*\* 이 논문은 2005년도 부천대학 교비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연구의 결과임.

고리화의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지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소외극복의 공간들이 현대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어휘에 어떠한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참여의 사고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해체담론과의 차이점과 경계해체 현상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인 피라네지의 건축세계와 동판화에 표현되어 있는 공간의 비전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면에서 그의 작업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후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개입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소외극복의 알레고리화의 과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용미학관점에서 피라네지의 작품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이후, 피라네지의 작품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작품군들을 형성하고 있는 현대건축가의 작품들을 비교분석하면서 피라네지의 작품에서 보이는 건축어휘와 현대건축어휘간의 유사성과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참여와 소외극복의 과정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한다. 한편 피라네지가 활동하던 시기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상상속의 경계해체 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분석하고 현대건축가들의 건축어휘에 미친 영감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 2. 참여예술과 경계해체 현상

### 2.1. 참여예술의 발달과 특징

수용미학은 1960년대 이후 제기된 문학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문학작품의 해석과정에 수용자(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유용한 틀로 작용해 왔다. 이것은 건축작품에 담긴 효과구조와 그것을 경험하는 수용자(독자)의 경험구조, 그리고 상호간의 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1)</sup>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프로그램의 공간들이 충돌하며 병치되어 대공간 속에 불확정적으로 배치되어 다양한 동선을 통해 스스로 공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현대건축공간의 경향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문학부문의 수용적 특성은 공간을 분석하는 틀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후기 구조주의 이후의 작가들에 의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건축 및 콘텍스트의 역사성, 예술성이 독자, 즉 수용자의 작품 체험 속에 끊임없이 참여하여 재생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한 소외 극복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sup>2)</sup>

수용미학은 문학의 텍스트나 건축의 콘텍스트 또는 역사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수용자의 '심미적 경험'에 두고 있다. 이것을 건축에 도입하여 생각하면 기존의 건축어휘의 구성방법과는 다른 형태의 공간 위계나 구성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효과적인 참여와 의미의 재생산적 공간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아이젠만은 텍스트에 해당하는 건축의 공간은 행간(between the lines)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참여자는 행간을 읽는 과정속에서 스스로의 경험과 기억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해석하는 여지를 남기는 과정이 알레고리의 과정과 상당부분 연관을 가지고 있다.<sup>3)</sup> 수용미학에서는 텍스트를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갖는 구조로 만들어 일관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만드는 것을 배격하고 독자마다 상상속에서 새롭게 지각하여 재구축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에서는 추미의 건축스타일과 같이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예상 밖의 행위, 즉 이벤트 요소들을 틈(in-between)으로 말할 수 있는 사이공간에 삽입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방문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 공간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해석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공간개념을 인지하게 한다.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가 사용했던 다양한 국적의 언어와 어휘들의 파편화와 상징 등을 통해 독자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만들어놓는 과정과 비슷하다.<sup>4)</sup> 전술했던 파편화, 불확정성, 연속성, 혼성, 상호침투, 복잡한 알레고리화의 과정 등의 건축어휘들은 해체주의 시기의 형태적 표현뿐만 아니라 이후 경험적 요소를 열어놓는 다층구조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공간을 구체화한다. 여기서 신체는 건축과 인간의 정신이 만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sup>5)</sup> 다른 예술장르가 관객들과 피부적으로 혹은 촉각과 시지각으로 인식가능한 스케일의 범위에서 인지되는 것과 문학에서는 행간을 통하여 개인의 상상속에서 읽혀지는 것과는 달리 건축은 인지가 가능한 스케일을 넘어서는 공간과 시간의 흐름속에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2)현대문학의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과정은 일종의 오독의 과정이며, 독자가 각자 읽어감에 따라 이야기에 참여하여 서로 다른 느낌으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를 재생산해 나가는 쌍방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3)건축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존의 텍스트에 해당하는 지역성의 인식과 함께 내포요소를 실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재창조 작업에 동참하게 된다.

4)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의 이야기 구조는 아키텍토닉적인 것을 닮은 기하학적인 구조 위에 겹쳐지고, 또한 그의 소설은 도시의 묘사를 통해 묘하게 구축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으로 울리시즈에서는 그러한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야기의 내용자체에서 주인공이 더블린 시를 묘사하며 도시공간을 구축하듯 해매인다.

5)기호학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논의와 같이 서로간의 끊임없는 미끌어짐 자체가 계속되는 움직임과 오독속의 창조적 재생산으로서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건축공간에서는 이러한 사이공간의 이벤트요소를 통하여 끊임없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의미의 새로운 생산이 가능해진다.

1)길성호, 건축작품의 수용미학적 해석, 건축학회 2002년 22권, p.589

이동시키는 가운데 기억의 축적이 되살아나면서 이야기를 재생산해내는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2.2. 경계해체 현상

다양하고 다원적인 특성을 지니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과 문화 자체는 점점 그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다. 문화가 Cross-Over, Fusion화 되어가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명확한 기능의 한정을 하기 보다는 적당한 범주만 주어지고 그 안의 행위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행태가 주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르간의 융합을 넘어서 고급문화와 서민문화, 전통과 현대문화사이의 복합화,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 참여하게 하고 상호교류하고, 끊임없는 재생산하고 대중과 유리되지 않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창조적으로 다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지속될 때에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외의 개념이 극복되는 세계가 될 수 있다. 일원화된 사회에서 탈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원화된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건축의 정면성과 방향성은 약화되어 3차원적인 중첩된 투시에 의한 건축형태의 표현으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작가와 건축물간의 1대 1의 관계에서 多대 多의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sup>6)</sup>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건축의 파편적이고 불확정적인 평면과 의미론적으로는 복잡한 알레고리가 형성되는 다의적이고 모호한 성격의 과정을 나타낸다. 현재의 다원화 된 사회에서는 벽을 통한 안과 밖의 이분법적인 공간구분을 거부하고 균질적, 모호한 공간적 한계를 지향하는 건축형태 및 외피의 재료로 나아가고 있다. 명확한 기능의 개별 실의 사용보다는 적절한 범주만 있고 행위 및 프로그램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기능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이러한 능동적인 사용자 중심의 의미부여과정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이다.

## 2.3. 피라네지 작품 분석의 의의

건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수용미학 및 경계 해체 현상의 원류에 피라네지의 동판화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많은 작가들은 피라네지 동판화의 비전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건축어휘와 현대건축가들이 사용하는 어휘들 중에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시행하기 힘든 건축적 비전을 오늘날의 건축어휘로 상상의 극한까지 실험했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동판화에서 내부공간은 인간이 인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스케일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는 공간에 중첩된 소설점을 통한 공간적 시차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동판화에서 구현하고 있는 신체이동에 따른 시점의 다양한 변화는 흐르는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중첩된 투시가 표출된 건축형태는 단일한 형태적 표현과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므로, 필연적으로 파편적인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이공간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음으로써, 해석자의 시점을 중시하게 한다. 90년대 이후 기존 체제의 거부와 고정관념의 해체를 통해 속도, 시간, 공간의 변화는 기존 건축범주의 해체와 건축의 고정적 관계의 약화로 인한 파편화된 건축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부재는 서열을 정하는 이분법적 논리의 거부를 야기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안과 밖, 공간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균질적 공간을 지향하는 건축 형태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화두로 건축활동을 하고 있는 일련의 작가군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라네지의 동판화와 알레고리적 특성들을 분석하고 현대건축 어휘와 비교하여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은 수용미학적으로 참여하여 창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소외극복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피라네지의 작품 분석

### 3.1. 캄포 마르시오(Campo Marzio)와 감옥(Carceri)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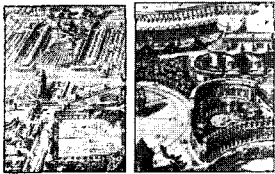



<그림 1> 피라네지의 초상

피라네지(1720~1778)는 이탈리아 베니스 출신으로 실제작품보다는 동판화의 비전을 통해 현대건축가에게 많은 공간적 영감을 준 작가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성향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레베우스 우즈(Lebbeus Woods)와 같은 페이퍼 아키텍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당시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던 계몽주의 사상과 고고학의 발전속에서 이성과 상상력을 결합한 공간구조를 표현함으로써 역사상 어떠한 건축가보다 상상력의 여지가 넘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당시의 시공간의 관습들을 종합하여 상상속에 그려낸 것이었으며 작품 대부분은 열병과 같은 착란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작업되었다고 전해진다. 중요한 점은 그의 비전속에는 관찰자가 참여하여 재생산하게 만드는 엠블럼과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라네지의 동판화는 모호함과 함께 시지각적인 면에 있어서 강렬한 흡인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문학적인 것으로 바꿔 말한다면 일종의 이야기적인 해석으로 분석가능하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의 공간에 빠져 끊임없이 미궁속을 헤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만큼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공간은 한눈에 형태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인 작품이 아니라 모호함과 미궁과 같은 구조속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작품구성이다. 이와 같은 구조를 문학에서 찾아본다면 천체적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야'에서와 비슷한 구조가

6)서승모, 건축의 알레고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석론, 1997, p.97

<표 1> Campo Marzio와 Carceri 에칭시리즈의 특성 비교 및 분석

분류	Campo Marzio 시리즈	Carceri 시리즈
특징		
사진		
전체공간	정확한 고고학적 사실에서 상상된 공간	당시 시, 공간의 관습 중합, 참여의 공간
특징	들의 조합, 플라주	공간 내부의 상상을 자극하는 건축 및 인테리어 스케일
스케일	도시적 스케일	순수한 볼륨과 공간에 매료되어 작업
작업 특징	현영상태에서 작업	경계 혹은 사이, 현실과 비현실의 교차, 공간의 모순, 교차
공간 특징	서사적 주제 (폐허의 조각, 파편)	지하감옥, 고문, 진행중의 작업장소 (작업 도구 거대한 힘)
모티프	다양한 기능과 역사적 건물	역동성의 조형화, 분리와 통합이 공존하는 체계
조형	프로그램 및 'Technology'의 영향, 세계 속의 세계 포함, 공간속의 공간	근대적 공간의 실험
의의	계몽사상 및 고고학발전의 영향속에 근대적 도시공간 제시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행간속에서 다양한 언어와 상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다양하게 재편가능한 이야기구조는 독자를 즐겁게 작품생산에 참여하게끔 만든다. 피라네지의 작품은 실제 지어진 작품 몇을 제외하고는 크게 캄포마르시오 연작과 감옥(Carceri)연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작품군들의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은 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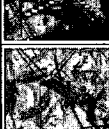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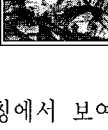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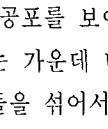
캄포 마르시오는 고대 로마의 도시구성을 당시 유행하던 고고학적 특성에 따라 상상속에서 적절히 플라주 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표현의 모티프 자체는 고대로마의 오더들이 쓰였지만, 그의 도시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공간들과 이미지들은 마치 현대의 대규모 공간이나 공장 이미지, 복잡한 대도시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캄포마르시오 연작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보는이 자신이 그가 구축한 현기증 나는 공간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무한한 상상을 하게끔 만든다. 이는 실제적이면서도 가상적인, 과거와 미래, 장소이면서 장소가 아닌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공간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는 현란할 정도로 많은 상상이 교차하여 관찰자로 하여금 참여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역사와 기하학, 시간과 공간을 산산조각내어 재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알레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보인다. 한편 감옥(Carceri)연작에서는 실제적인 공간내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도시스케일과는 다른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공간 내부는 기괴한 이미지 때문에 어둡고 음침한 공간인 것

7) 제임스 조이스는 예술지상주의를 신봉하는 시인적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난해한 《피네간의 경야 Finnegans Wake》(1939)는 진일 보한 실험적 작품으로 《울리시즈》에서 사용된 '의식의 흐름'의 수법이 중형으로 구사되었으며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알레고리화를 통해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독자가 개입하여 각자의 이야기를 새로 재생산해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같지만, 당시로서는 실현하기 힘든 거대공간과 경계해체적 공간의 이미지들이 적절히 교차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공간은 이후 실험되었던 다양한 근대적 공간을 실험한 것으로 이 역시 공간속에서 관찰자로 하여금 공간에 참여하게 하는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sup>9)</sup>

이러한 참여의 공간은 제임스 조이스의 울리시즈의 파편화된 이야기체에 대응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장의 순서의 구분 없이 읽어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조합하여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 동시에 도시적 구조와 이미지를 이야기 내에 삽입하여 독자 스스로 도시구조를 재편하여 각 독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걷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다.

<표 2> 피라네지 등판화의 이미지 분석

분류	사진	이미지에 내포된 특성
특징		
경계성		프로그램 및 'Technology'의 영향, 세계속의 세계 포함, 공간속의 공간
파편화		어긋나는 각각 면들의 요소, 공간의 중첩과 역동성 강조 (오브제와 구름다리와 장식의 겹침)
시점상의 공간모순		수직적 공간의 운동, 완결된 공간을 지향 (소실점의 숨김) 오브제들은 공간의 접점에 위치, 공간의 전개를 암시
공간적 시간적 분리		오브제들은 부수어지고 잠식되어 결국, 빛과 어둠의 형태, 각각의 면들의 요소들은 구조 내에서 서로 조금씩 어긋나고 있음.
운동감		하부에서 상부로의 나선의 회전 운동, 무질서한 축적이 아닌 규준을 통한 질서, 새로운 투시도수법
거대함과 어둠		거대한 공간의 느낌
알레고리화의 이미지		인간화의 과정(복잡한 알레고리의 과정), 각각의 공간에 참여

그의 에칭에서 보여지는 건축공간들의 이미지들은 엑스타시에 가까운 공포를 보이고 있다. 부채들과 기구들이 기하학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바로크적인 구성물과 함께 얽히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섞어서 재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의 공간은 지옥, 무덤 죽음 등이 공존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침한 공간은 복잡한 알레고리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된다.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우

8) 캄포마르시오에서의 도시구조는 실제도시(로마)를 근거로 하면서도 마치 이탈리아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를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게 실제도시인 로마를 그리면서 상상의 도시로서의 신화와 고전적 유추의 모든 단편들로 알레고리화된다.  
9) 신승수, 피라네지 공간의 극장성을 통해 본 근대성의 재해석, 서울대석론, 1997, p.139

면서도 즐거운 인간화의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부재와 현존의 끊임없는 교환작업을 통한 공간속의 공간,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계'라는 것은 항상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불안정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적인 힘이 교차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미끌어지는 부분이다.<sup>10)</sup> 간격은 inter(“~의 사이, 가운데”)와 vallum(vallus 즉, “기둥이나 말뚝”에서 기원하는 “말뚝이나 벽”)과의 결합의 결과로 생긴다.

그렇다면 간격은 점입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의 현존을 나타내면서, 문자적으로 “벽 사이”를 의미한다. 동시에 사이공간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끌어낼 수 있다. 하나는 마로의 사이에 있는 장소, 즉 끊임없는 미궁속을 헤매는 과정이며 지도를 통해 무언가 찾아내려는 욕망이 교차하는 장소이다.<sup>11)</sup> 피라네지가 구현하고 있는 공간속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선에 따라 다양한 작업기구들과 활발히 움직이는 사람들, 고문기구와 연기사이로부터 수직적 공간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수평적 실험에서 중심의 균열과 또 다른 중심을 발견하는 모순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공간속의 실제적인 구조와 고딕 아치, 갑자기 도는 거대한 계단, 뿌연 뒷 배경과 연기, 여러 가지 도구 등의 많은 요소들이 쓰이면서 공간속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관찰자로 하여금 더욱 그 공간에 집중하여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 3.2. 피라네지 공간과 알레고리적 특성

일 방향적인 기존의 예술작품과는 달리, 해석에 있어서 독자나 경험자가 상상의 여지를 만들어 일 방향적인 권력구도의 권력양상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용미학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미학적인 작품을 관찰자가 해석하는 과정에는 보통 복잡한 알레고리적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예전에 알레고리는 기본적으로 설화, 신화, 성서의 해석과 관계되는 비유적 수사로서 그것이 시각예술의 주제적, 양식적 범례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화나 성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회화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각자의 지식의 정돈나 삶의 경험에 따라 복잡한 기억의 연상작용과 함께 다른 방향으로 재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로 인식되게 된다.



<그림 > 알레고리의 의미화과정 분석표

10) 이러한 의미에서 기표와 기의의 끊임없는 미끌어짐을 통하여 같은 사물이나 단어가 다의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과 같이 공간속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11) Jeniffer Bloomer, Architecture and the Text: The (S)crypt of Joyce and Piranesi, (Yale University Press), 1992, p.168

이러한 알레고리가 고전주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형상화 전통 속에 계승되어 오다가 모더니즘, 특히 추상미술의 정착과 함께 후퇴하지만, 초현실주의, 극사실주의, 신표현주의와 함께 부활되는데, 그 이유는 해석과 비평의 모델로서 알레고리가 함의하는 내재적 '초텍스트성' (또는 '상호텍스트성') 때문이다. 알레고리의 주된 특성중의 하나는 그의 내부공간에서 보여지는 파편적인 부재들과 공간들 역시 새로운 구축과 의미부여를 위한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알레고리의 특성에 따라 건축에서는 알레고리적 표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첩된 투시에 의한 건축형태의 표현, 둘째, 파편화된 건축형태의 표현, 셋째, 균질적, 모호한 공간적 한계를 지향하는 건축형태의 표현, 넷째, 건축존재의 허구성을 나타내는 표현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첩되거나 파편화 된 표현은 양피지와 같이 역사와 기억의 저장소인 건축이 가지는 본래의 특성과 같다. 이는 역사적 장소나 역사적 기억의 매개물이나 역사적 기억의 요소들을 파편적으로 조합하여 플라주하거나 선의 중첩이나 요소들의 중첩을 통하여 알레고리적 과정을 거치게 하는 요소들을 말한다. 세 번째의 표현은 한눈에 공간이 파악되기 힘든 다양한 동선과 선적요소들이 교차함으로써 시간과 동선의 이동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특히 세 번째의 공간은 요즈음 유행하는 위상기하적 공간이나 액상 건축(Liquid Architecture)에서의 표현양상과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특히 끊임없는 움직임과 여러 가지 것들의 섞임을 통해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sup>12)</sup>을 중시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은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이나 유리의 다양한 사용과 비물질화된 물성을 이용한 건축물을 통하여 존재감의 다른 양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사인Sign이나 심볼Symbol, 엠블렘Emblem과는 달리, 알레고리Allegory는 서사적인 주제와 함께 기존의 다양한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본이 되어 여러 요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거대하고 힘 있는 이미지로 다가오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공식과 같이 단순한 도식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다양한 것들이 교차하면서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거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므로 단순한 상징보다 더욱 심층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따라서 알레고리화의 과정은 종종 직물이나 그물망을 짜는 것으로 달리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알레고리

12)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에서의 내용은 각각의 고원으로 상징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자는 처음과 끝의 구분 없이 순서없이 책을 읽어도 되며 전체의 내용이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이의 영향을 받아들여 UN Studio의 매니얼(인간과 말의 중간 단계의 포유류)과 같은 창조물을 구축함으로써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를 다른 말로 “은유적인 그물망(짜서 만든 것)”이라고 부른다. 직물의 짜질과 날줄 자체는 큰 역할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묶여져서 하나의 커다란 직물을 만들고 직물속에 의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넣고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물을 짜는 행위는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호한 상태에서 관계없는 듯한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으며 반대로 직접적인 것을 말하는 가운데 허구를 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sup>13)</sup> 짜여진 것은 단순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대리적 표현의 역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숨겨진 채로 억압되어왔던 무언가를 표면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 알레고리 의미화 과정과 특성

과정	구분	알레고리화의 key word	특성
①	다층 레이어 및 콘텍스트	양피지, 조개무지, 지도	역사, 기억, 재발견, 적용, 의미의 퇴적작용
②	내용 포함 및 쓰는 작용	동굴, 선박, 용기, 상형문자, 트로이 목마, 돌, 파편	외형내에 의미내포, 다른 의미의 해석가능성, 다른 것으로의 변환
③	교차 및 직물	파마콘, 로케토, 짜기 이중교차, 거울 patchwork (기운것)	의미의 상호교차, 모자이크화, 변증법적 과정 차이점의 혼합, 침투
④	복잡함	바벨탑, 글자, 암탉	교차/복합 통한 재생산
⑤	새로운 창조	인공부화장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창조, 및 내포

텍스트는 한정된 시각에서 글쓰기 이상의 직물과 같은 대상이고 그것을 통해 말하거나 진실이 표현되는 투명한 매개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건축에서도 사이공간에의 많은 요소들과 동선, 그리고 어두움의 이미지들이 이러한 짜기와 텍스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라네지의 동판화를 보는 관찰자는 강한 흡입력으로 그 안의 공간에 들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콘텍스트와 자신의 기억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피라네지의 작품에서 보이는 고전적 오더들과 공간들이 파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징 및 알레고리들이 녹아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데 다양한 요소들이 보인다. 제니퍼 블루머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키워드로 판단을 했고, 복잡한 심적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성과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위의 표는 여러 상징 및 알레고리가 녹아 있는 피라네지 공간을 몇 가지 키워드와 함께 알레고리화의 재생산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알레고리는 연상작용을 위하여 역사, 기억, 내지는 콘텍스트가 필요하여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다의적인 의미들을 내포함으로써 다양한 연상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후 관찰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지식이나 성장배경으로부터 오는 경험요소들과 함께 다중의 의미들을 상호 교차시키고 모자이크화 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상호 침투한다.

이후 복잡함과 고통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는 필수적으로 관찰자의 개입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재생산된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면서, 다음 관찰자의 개입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듭하게 된다.<sup>14)</sup>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직물과 텍스트, 공간 등은 다양한 의미의 텍스트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담론으로 풍부한 의미의 공간으로 탄생하게 되고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피라네지의 경우, 그의 작품은 부재와 현존의 끊임없는 교환작업을 통한 공간속의 공간,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그의 프로그램은 선에 따른 수직적 공간의 시나리오를 따라가면서 수평적 실험에서의 중심의 균열과 또 다른 중심을 발견하는 모순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모순적인 느낌 가운데 재생산과 창조의 의미가 역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 4. 피라네지 작품과 현대건축어휘와의 상관성

<표 4> 피라네지작품과 현대건축어휘의 연관성

피라네지의 건축어휘	구분	현대건축의 어휘
공간사이로 보이는 공간의 팽창에 따른 거대함 감지 어두움에 용해되는 거대함	거대함	렘콜하스의 Bigness의 개념, 메트로시티의 거대 건축에 인지되는 정체성
지옥, 무덤 등 죽음의 냄새 주체의 시각적 공간참여가 물질속에 부여하는 생명	어둠(감옥)의 이미지	Mail 化, 네트워크화된 동선, 지하 및 하부에 대부분의 교통위치
각양의 작업도구 및 사람들 및 공중을 가로지르는 공중 부양교들, 파편화, 조합	역동성	추미의 이벤트 공간 공간의 파편화 공간의 시나리오화
앞부분의 공간압축과는 대조적으로, 사이로 보이는 공간들의 팽창모순	공간의 모순 (통합 및 전체적 시점)	모순된 프로그램의 충돌 연속된 슬래브 (Continuous Slab) 폴딩(Folding)
수직적 접점에 위치한 오브제, 숨겨지는 소실점, 공간비약의 상상 가능성	불확정성	상호관입, 다차원적 시점

##### 4.1. 거대함, 어두움의 이미지

위에서 설명한 거대한 공간이라는 측면은 현대건축공간과 도시의 거대화 현상과 묶어 생각해볼 수 있다. 렘 콜하스는 거

14) 여기서 양피지와 조개무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중첩되고 쌓여있는 역사 및 기억이 중첩되어 쌓여있는 것을 의미하며, 동굴과 트로이목마 등은 하나의 의미속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Double Coding을, 패치워크와 로케토는 상호교차되는 과정속에 섞여들어가는 것(콜라주의 과정)을 의미한다. 바벨탑은 이러한 의미들이 복잡한 연산을 하는 혼돈의 과정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공부화장에서와 같이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5> 현대건축가의 건축이미지와 알레고리화의 상관성

현대 건축 어휘	알레고리화의 과정	Rem Koolhaas		Bernard Tsumi		Peter Eisenman		UN Studio	
		사진	세부설명	사진	세부설명	사진	세부설명	사진	세부설명
어둠 (감옥)의 이미지	다층 레이아웃 콘텍스트 (역사, 기억, 재발견, 적용 의미의 퇴적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와 하부에 대부분의 교통 위치</li> <li>• 거대화 와 어두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공간 사이트 내의 필연적인 어두움</li> <li>• 다양한 선의 교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적인 여러 가지 축 사용으로 기억인자를 이끌어냄</li> </ul>		거친재료마감 수법 사용, 허부공간의 다양한 사용
거대함	내용 포함 및 쓰는 작용 외형내에 의미내포, 다른 의미의 해석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gness의 개념</li> <li>• 메트로시티의 거대건축의 정체성</li> <li>• 다양한 프로그램의 병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공간의 사이공간 내에 이벤트 공간의 삽입</li> </ul>		대규모 건물과 다양한 선의 교차 등을 이용하여 거대한 공간의 이미지 구축 사례 다수		여러 블록을 넘어 서서 개발하는 계획 사용
역동성	교차 및 직물 의미의 상호교차, 모자이크화 혼합, 침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ll 化,</li> <li>• 네트워크화된 동선</li> <li>• 다양한 동선교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벤트공간</li> <li>• 공간의 파편화</li> </ul>		해체건축의 이미지와 함께 형태자체의 역동성 부여		위상기하적인 공간의 사용, 유동적 공간, 맥상건축, 리좀공간 혼성화된 건축
불확정성	복잡함 교차/복합 통한 재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순된 프로그램의 충돌</li> <li>• 연속된 슬래브</li> <li>• 폴딩 (Foldi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의 시나리오화</li> </ul>		점차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배지로 불확정성 증가		블록과 맥상건축, 기능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분석 통한 자유로운 배치
공간의 모순 (통합, 전체적 시점)	새로운 창조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창조 및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시점에서 전체적인 공간 인지 가능</li> <li>• 다양한 공간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시점에서 전체적인공간 인지 가능</li> <li>• 다양한 공간 체험</li> </ul>		다양한 선과 공간의 충돌로 인한 충격, 모순속의 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시점에서 전체적인공간 인지 가능</li> <li>• 다양한 공간 체험</li> </ul>

대함(Bigness)에 대하여 설과하고 있으며 거대한 공간을 구축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두움의 공간을 인정하고 있다.<sup>15)</sup> 대규모 지하공간의 어두운 공간 가운데로부터 수직으로 상승하는 동선과 통합된 거대 공간속을 거닐다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만 같은 이질적인 프로그램의 공간들이 충돌을 일으키듯 병치되어 나타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나간다. 그 이미지는 매우 역동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게끔 하며 의미를 재생산시키고 있다. 피라네지의 동판화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레고리화의 과정은 두뇌의 심층적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다양한 기억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어두운 공간이 밝은 공간보다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에 근본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매우 괴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두움과 함께 감옥과 같은 느낌을 가져오게 한다. 추미는 건축의 정의를 “논리와 고통, 이성과 변민, 개념과 행복의 교차점”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간으로 보자면 단순한 공간이 아닌 거대한 공간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관찰자가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며 이벤트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다.

## 4.2. 역동성

피라네지의 동판화에서 보여지는 비전은 외적으로는 순수한 불륨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대함, 환상 및 어두움의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공간의 불륨과 순수한 입면속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복합적 프로그램을 집어넣음으로써, 작업의 역동적 모습, 공중부양다리들의 중첩과 이동의 모습, 공간의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를 쓰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취하고 있다. 그 공간은 다수의 언어와 글쓰기의 형태가 서로 충돌해 들어가고 혼합되고 항구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가장 조화되기 힘든 타자성을 통하여 이미지가 생성되는 바벨탑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라네지의 에칭시리즈(감옥Carceri)에서는 오브제의 실체성을 빛과 어둠의 존재형태 안에서 용해시키고 인간의 자리를 공간과 공간사이에 위치시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알레고리적 과정은 역사와 기억과 같은 기존의 텍스트들의 다른 의미의 변화 가능성속에 의미의 상호교차와 변증법적 혼합과 함께 교차하고 침투하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알레고리화의 공식과 같은 과정을 피라네지의 동판화에서는 몇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기억과 의미의 퇴적을 고전적 오더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을 동판화에 상징적으로 배치함으로

15)렘 콜하스는 거대함(Bigness)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도시는 빛의 거대 건물로서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며 거대건축물의 거대공간과 필연적으로 따르는 어두움을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은 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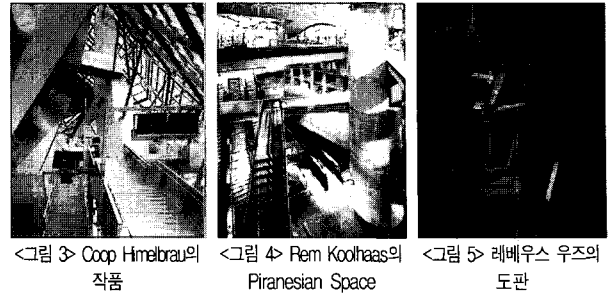
써 알레고리화의 기초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렘 콜하스는 다양한 동선과 구름다리화 이미지들이 흘러들어오고 나가면서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동선과 연속된 슬래브들은 상호교차하고 관입되면서 다양한 시점의 공간들을 만들어내며 공간들을 파편화시키고 충돌시킨다. 또한 전체적 시점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공간들은 동시에 인지가능하기도 하다. 특히 피라네지의 감옥 연작과 현대건축어휘 중 이러한 점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휘는 알레고리화의 과정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동시대의 건축가들 역시 공간 또한 그러한 과정들에 영향을 받아 건축어휘에 있어서 질서(외관)속의 불확정성(내부)을 담기 위한 건축적 어휘들을 담고, 거대함 속의 현상을 그려냄으로써, 억압과 해방, 분리와 통합, 기계와 생명, 그리고 기술과 건축가 사이에 인간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 공간의 모순, 불확정성

역사적 기억과 의미의 퇴적작용에는 현대건축의 포스트모던적인 일차적 의미의 상징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체건축에서 즐겨 사용했던 다양한 의미의 선과 역사적 축, 옛 이미지의 재료사용 등의 수법으로 기억인자들을 끌어내는 수법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흐름도와 같은 체계적 과정이 아닌 모순적인 이미지들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상호교차하고 불확정적으로 상호관입하며 심층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피라네지의 실제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상상-미로 위에 있는 도시-을 통해 결코 도달할 수 미로라는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의 비약을 통해 극심한 공포를 보여준다. 역사적 기억과 의미의 퇴적작용에는 현대건축의 포스트모던적인 일차적 의미의 상징요소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체건축에서 즐겨 사용했던 다양한 의미의 선과 역사적 축, 옛 이미지의 재료사용 등의 수법으로 기억인자들을 끌어내는 수법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라네지 및 콜하스의 공간들이 보여주는 것은 억압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참여의 과정을 통한 인간해방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공간들은 추상적 개념과 실제적 공간의 내부모순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이공간을 통한 공간모순 차원이 공존하고 있다. 건축계에서 논의되었던 “틈”과 “간격”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그램의 충돌과 경계해체 현상도 이러한 영향하에서 이루어졌던 주제들이다.



<그림 3> Coop Himmelbrau의 작품 <그림 4> Rem Koolhaas의 Piranesian Space <그림 5> 레베우스 우즈의 도관

이렇듯 수용미학적 측면과 알레고리화의 과정은 근본적으로는 헤겔이 말하는 소외극복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예술과 문화부문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려 하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 혹은 사이(In-Between)를 통해서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특이성을 끊임없이 교환하면서 역동성을 조형화하고 분리와 통합이 공존하는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5. 결론

일방향의 전개에서 참여측면의 수용미학적 공간들이 생겨나고 표현면에서 해체의 담론과 후기 구조주의 이후의 경계해체 현상들은 살펴본 바와 같이 알레고리의 형성과정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표현특성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비전과 표현의 원류에 피라네지의 내외부 동판화가 있으며, 그곳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공간과 표현요소는 알레고리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현대의 다양한 공간양상의 전개에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했다.

피라네지의 공간은 현대건축이 여러 건축가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참여의 사이공간과 하부공간의 이야기들이 교차하는 시나리오와 형태들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며, 현대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대한 공간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외적형태는 대체적으로 도시에 순응하거나 오히려 유동적으로 흡수하는 유기적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는 바로크공간과 같이 통합적인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고있다. 사이공간에서는 다양한 건축요소들과 이벤트 요소들을 배치하고 입출구의 다양성 동선의 자유로움, 풀딩과 같은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파편화되어 본문에서 언급한 알레고리화 과정을 거치게 한다. 현대건축가들 중에는 그의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한편으로 언급하면서 그의 공간체계를 중시하는 건축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많은 건축가에게 현대건축공간의 가능성에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건축공간의 경계해체현상이 소외극복을 위한 과정으로 진화해왔으며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알레고리화의 과정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성호, 수용미학과 현대건축, spacetime, 2002
2. 로버트 C. 홀립, 수용미학의 이론,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3. 마이클 헤이펜,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Spacetime, 2003
4. 문용구, 로지에와 피라네지의 건축이론에 나타난 낭만적 고전성에 관한 연구, 건축학술발표, 1996
5. 반성완 역, 생산자로서의 작가,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1983
6.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심성완 편역, 민음사, 1994
7. 폴랑 바르트,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폴랑 바르트 전집 12, 동문선, 1997
8. 오근영, 선이해가 근거된 텍스트중심이론을 통한 현대건축의 방향성 모색, 건축학회논문, 2003년 8월
9. 이철재, 디지털리즘의 인식론적 공간구성해석, 홍대박론, 2003
10. 자크데리다, 그라마톨로지, 김성도 역, 민음사, 1996
11. 제니퍼 블루머, 건축과 텍스트, 임기택 역, spacetime, 2006
12. 존 맥킨, 알레고리 송낙현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13.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휴머니스트, 2004
14.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15. 신승수, 피라네지 공간의 '극장성'을 통해 본 근대성의 재해석, 서울대 석론, 1997
16. Jeniffer Bloomer, Towards desiring Architecture: Piranesi's Collegio,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1
17. Jeniffer Bloomer, Architecture and the Text: The (S)crypt of Joyce and Piranesi, Yale University Press, 1992
18. Manfredo Tafuri, The Sphere and the Labyrinth translated by Pellegrino d'Acierno and Robert Connolly: MIT 1987
19. Rem Koolhaas and Bruce Mau, Delirious New York, New York: The Monacelli Press, 1994 New Edition

<접수 : 2005. 12. 29>